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4>



부처님의 새해맞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365일이 문을 여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작심삼일을 염려하여 지레 새로운 계획 세우는 일을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아주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삼일 이상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겠거든 삼일마다 계획을 세우라고 말이지요.

새해를 맞이하자면 자연 '시간'이 대체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생각하다보면 아무래도 '시작'이나 '끝'이라는 개념까지도 함께 고려를 들고 따라 나옵니다.

인도인들에게 있어 시작을 의미하는 말은 아디(आदि)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잡다(잡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부터 잡느냐에 따라 그때부터 시간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한정된 사유, 치우친 분별심을 떠나서 눈을 크게 뜨고 삶을 바라본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저 날마다 좋은 날이고, 여유하게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묵묵히 있으면 될 것이고, 허물을 발견하였다면 그 일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던지셨고 비구들은 다들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때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사리불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구들은 여래의 몸과 입과 뜻에서 허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오늘까지 모든 이들을 제도하시고(중략) 증생들의 의지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의 이 말로 부처님은 법한 살을 더 얻게 되신 것입니다. 뒤에 사리불 존자도 부처님과 똑같은 질문을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래께 제 자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래와 비구들에게 허물이 없었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사리불은 몸과 입과 뜻에 악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대의 지혜는 아무도 따라갈 이가 없으며 욕심이 적고(중략) 심정이 조용하여 사납지 않아서 위없는 법바퀴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은 부처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인 5백 명의 수행자들에게 관해

모인 이들 중 최고 어른이 먼저 자기 허물 묻고 타인에게 청정함 인정받은 뒤 서로 덕담 나눬

그렇게 본다면 묵은해니, 새해니 하며 인사말을 건네는 우리의 감성이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와 사람이 '잡는' 데에서 시간이 시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시간은 당사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사람마다 무게가 다를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새해맞이는 제자들과 함께 안거(安居) 석 달 마친 뒤에 나이 한 살 씩 더 집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수세(受歲)라고 하는데 인제가 끝나는 7월 보름날에 거행되며 이 때 벌는 나이가 바로 법랍인 것입니다.

<증일아함경>(제24권 선취품)에는 새해맞이 행사에 관한 당시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7월 보름날 밤에 부처님은 아난에게 모든 수행자들을 불러 모으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난아, 어서 건추를 쳐라. 오늘은 수세를 하는 날이다."

수행자들이 모여 들자 부처님은 자리에 앉기를 권하신 뒤 이렇게 말씀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제 수세를 하려 한다. 말해 보아라. 나는 대중에게 허물이 없는가. 또 몸과 입과 뜻으로 법한 일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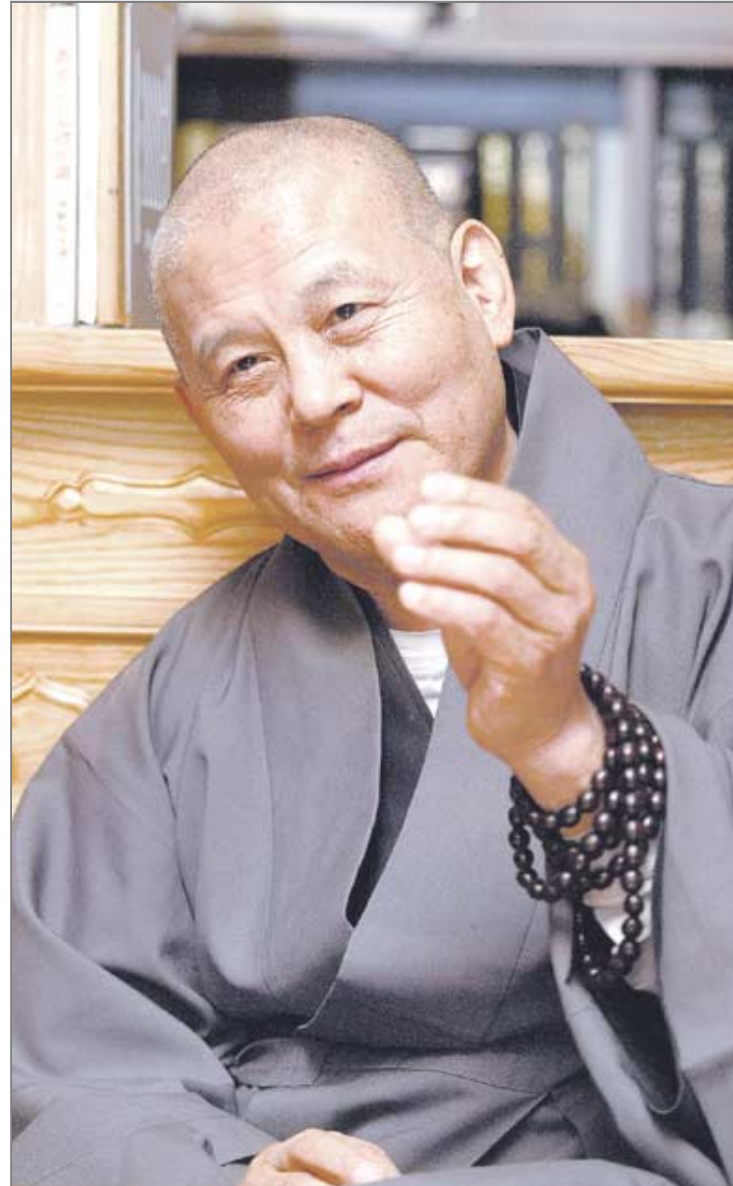
서도 여쭙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자기 스스로와 타인에게 있어 티끌 만큼의 허물도 없음을 확인 받은 뒤에 나이 한 살씩을 더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어른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묻고 그들로부터 청정함을 인정받은 뒤 차례로 덕담이 이어지는 과정은 언제 읽어도 큰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하여 나이 한 살을 얻게 된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숭고하고 정결하겠습니까. 부처님에게 있어 나이란 것은 그저 밥그릇을 열심히 비우고 주름살만 늘어갔다고 하여 얻게 되는 숫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티 없이 맑은지를 돌아보는 일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사리불이 서로에게 건네는 덕담을 보자면, 죄를 짓지 않은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간 것을 중요시 했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나이를 쌓아간다면 훗날 거친 윤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묵직한 자신의 연륜이 자랑스러워질 것입니다.

■ 이미형(중국경제연구원 원장)

계율은 지혜의 어머니



지관 스님은

1932년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난 지관 스님은 1947년 자은 스님을 은사로 합천 해인사에서 득도했다. 1955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1970년부터 1972년까지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또 스님은 1960년부터 70년까지 해인강원 강주로 있으면서 후학을 양성했다. 이후 72년부터 74년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77년 동국대 정각원장, 80년 동국대 불교대학장, 1984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장을 거쳐 86년에는 제 11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로 동국대 이사, 조계종 원로위원회(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을 맡고 있다. 스님의 저서로는 <가산불교대사림 총 15권>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교감역주> <역대 고승비문 총 6권> 등 다수가 있다.



지관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큰스님께서는 연구원들의 원고 교정과 사전 집필 작업 등으로 일 분 일 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황을 알려주십시오.

-글쎄,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4~50여년전 해인사 강주시절이나, 주지소임 불 때나, 동국대에 있을 때나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삼장교재(三藏教海)와 선배들이 남겨 놓으신 한국 불교 일천할백년 자료들이 늘 나의 의미있는 작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갈 일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아까워요.

나는 한가한 행복(淸福)과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원에 출근해 외근박사로 정진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작업을 살펴보는 등 원고를 정리하고, 저녁이면 경국사로 돌아와 여러 시간 작업합니다. 사전작업은 공중(公衆)에게 언약한 내 평생의 원력이니, 부지런히 하여 대중에게 회향하여야 하고, 일천년의 보물창고, 한국역사속에 곁곁이 쌓여있는 불교사의 지층들을 풀어놓을 일 등에 마음이 바쁩니다. 연구원에서는 한 열시간, 경국사로 돌아와서는 일곱에서 여덟 시간 정도 작업합니다.

절대빈곤층에 관심 기울여야

▲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힘든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부처님께 구한다면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난과 고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50~60년 대를 생각하면 그래도 오늘이 너무 풍요롭지요. 문제는 절대빈곤층 등 생사의 안전망을 벗어난 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문제입니다. 안전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누고 보살펴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나 정책도 전향적으로 이곳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근면하고 정직한 국민의 의식과 행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되게 산다는 것에는 반드시 인과가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이 쌓여 부패하고 있거나, 게으르면서 늘 남의 탓하는 것이나 모두 불안과 가난의 인과응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재가자(在家者)의 3대 강령으로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그리고 생계(生計)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사찰 참배가 쉬워졌습니다

팔공산 은해사·갯바위 참배길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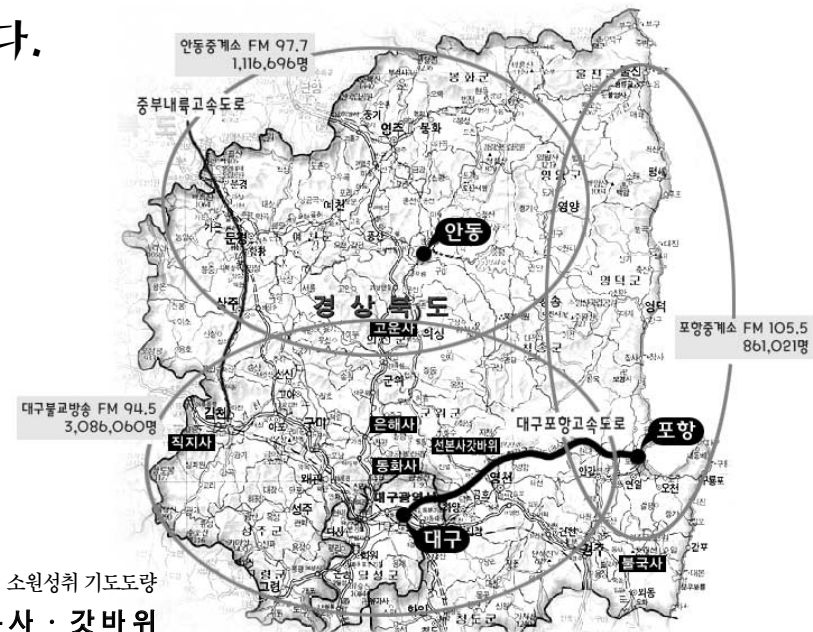


대구불교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53)427-5114 www.dgbbbs.co.kr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펴는 BBS 대구불교방송

한가히 소원성취 기도도량 선본사·갯바위



을 강조하셨지요. 서로 나누고, 근면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복된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내심이 부족해 서로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간적인 화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나지 않는 세상, 불행이 없는 행복한 세상, 소유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 모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불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들어다보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법이 근본입니다. 영원히 화내지 않고, 행복하고,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탐욕(소유과 집심(불화)과 치심(우매함)의 삼독이 세간의 평상심이기 때문이지요. 삼독 그 밖의 세상이 있는 것

공인되지 않은 수행자들이 대중지도도 혼란스럽게 하고, 수련되고 성숙한 법문과 지도 등 수행풍토 진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나마 교단 내외에서 공적인 장을 열어 대중토론편도 하고 서로 연마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서도 이런 데에 책임을 느껴 고전수행논서들을 선정하여 역주작업에 들어간지 몇 년이 됩니다. 우선, 위빠사나 수행논서 중 고전에 속하는 <빠띠삼바다 마가역주>, 선수행의 대중규범서 <선원청규역주>, 한국간화선의 가장 오래된 법문 <진각국사어묵역주> 등을 꾸준히 작업해서 출간하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생사(生死)를 거는 자제로 타마하고 몰두해야 수행이라 할 수 있지요.

불자들 책 안 읽는 풍토 염려돼



사건편찬과 강의 등 불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여념이 없는 지관 스님.

은 아닙니다. 다만 그 뜨거운 불 속을 잘 견디어 지나가는 길을 가르쳤지요!

계, 정, 혜 삼학(三學)은 불 속을 지나가는 견고한 갑옷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공력을 키우기 위해 삼매의 힘을 기르는 등 낯다른 시간을 투자해 수행해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기술을 전승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기에, 분별이나 지식으로 들어가는 학문과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이며 또한 귀중한 전통입니다. 모두들 유행에 빠지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 금강석같이 수행하세요!

탐·진·치 삼독이 세간의 평상심

▲재가자들의 수행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선 수행' 추앙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할때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 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선수행을 맹목적인 것으로 보지만, 우리 천년의 수행전통을 잘 배워 계승하려 하기보다 이런저런 곳에 쉬운 방편을 찾기도 하네요. 남방 위빠사나의 수행열기도 만만치 않지만 지도편차가 심하여 걱정입니다.

법을 배워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엄격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반드시 선지식과 그 선지식에 의해 전승되고 검증된 고전들이 있습니다. 1000년에 걸친 삼장의 주석과 대장경의 유통에는 이러한 공중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생사 거는 자세로 수행을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핸드폰의 일반화, KTX 등 속도와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이 거셉니다. 이러한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면 '낙오자'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속도만능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런지요?

-요즘 노림의 철학으로 대안을 삼기도 하는데, 의식의 흐름은 세간의 어떤 속도외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념(一念이 만년(萬年)이요 만년이 일념이라 하였으며,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 하였습니니다. 불자라면 자신감과 의연함을 갖고 현상을 바라보세요, 아무리 빨라도 '폴임에 이슬'입니다.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되겠지요.

▲스님께서는 지난 50여년 간 '학승(學僧)'으로서 학문 정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배움의 길을 가는 후학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주십시오.

-을기하여 스님이 된다는 것은 공공(公衆)에게 사사로운 나를 버리고 공공의 정신과 요익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 큰 사건입니다. 즉 공중에게 의무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자존(自尊)과 의무(義務)를 지키기 위한 남다른 노력정진이 필요합니다. 집기나 잡사를 거두절미하고 삼장(三藏)과 삼학(三學)에 전념하여 푸른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인생(人生)·복전(福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연을 배부신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의 은혜를 깊이아조.

▲새해가 되어 나이를 한살씩 먹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지요.

-나이는 세월의 다른 이름일 뿐 우리의 실상과 관계없습니다. 본분사(本分事)에서 바라보면 나이는 드는 것도 느는 것도 아니지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의 시작과 끝을 한번에 바라볼 수 있듯이, 마음에는 동서(東西)나 고급(古昔)이 없습니다.

천진(天真)에는 오직 안(內)과 밖(外)의 경계가 모두 사라지고, 광활하여 중중무진(重重無盡)한 광명(光明)의 법계(法界)만이 현현할 뿐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환기자

-계와 율은 선정과 지혜를 출생시키는 불모(佛母)입니다. 수행을 앞서 말했지만 계율이 근본이지요. 관습이라든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과 행위들은 모두 속업(滯業)과 나쁜 습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선 계는 개인적으로는 지범지계(止犯持戒)입니다. 악습이나 무지한 행업을 그치고, 새로운 습관과 행동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업(供業)에 기초해 규범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계율입니다. 개인과 개인, 인간과 자연, 스승과 제자, 수행자와 단위의 관계 등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번뇌들을 통찰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공동의 규범입니다.

한국불교는 통일신라시대 대중불교의 폭격이나 다름없는 불은(佛鬘)을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만 해도 <회음종요> <법화종요> <무량수경종요> <이장의> 특히 대중규범서인 <법망경지범요> 등 대중근본경전이 모두 주석되었습니다. 우리민족은 일천년이나 이전에 빛나는 수행교과서를 수지한 셈이지요. 보물이 있으나 갖고 딱지 없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인들도 서양도덕학 배기기에 바쁘고, 승가도 제소리하기에 바빠 태산같은 지혜가 닫혀 있어요. 가르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써 배우고 연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연 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설송 스님 (上)

토탄산(岫山)의 새벽을 깨우는 도량서 목탁 소리가 석굴암 경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정구업진인 수리수리마하수리 수수리사바하...

청아한 목소리였다. 아무런 티끌도 묻어있지 않은 맑은 음색이었다. 그저 맑고 청아한 목소리라는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그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허무를 시작하곤 했다.

노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일정한 음조(音調)로 이어지는 그의 특경은 새벽 냉기와 어울려 서늘한 새벽 산사의 공기와 어우러져 잠든 만물을 깨어나게 했다.

노행자(老行者)라 불리던 설송(雪松) 스님. 입산한 지 6년인가 7년이 지났는데도 수계를 하지

숨어 버리고자 했음인가.

빼적 마른 출찍 큰 키의 그가 남의를 걸치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뒷모습이 땅박을 스친다. 잠된 행자(行者)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는, 그 길을 가고자 염연하고 감당했던 그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편안히 안주(安住)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승가가 가야할 궁극의 가시밭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다. 진정한 사표로서 슬한 유혹의 손짓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믿는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지 않았는가.

서두르지 않고 소꿉음처럼 천천히 묵묵히 한 번 팔지 않고 걸어가는 자야말로 피안에 이를 수 있다. 행주자와(行住處臥)에 흐트러짐이 없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자만이 피안에 이를 수 있다. 부모미생전의 면목, 무상의 보리를 증득(證得)할 수가 있다. 하나 말이 쉽지 어디 그게 뜻대로 되는가. 말 타면 경마 잡고고 싶다고, 조금 편하면 더욱더 편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속



그림·문병성

않아 그렇게 노행자 또는 늙은 행자로 불려지다 여러 스님들의 설득에 마지못해 계를 받고 '설송'이란 법명을 받은 터였다. 그러나 스님의 일상은 계를 받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없었다.


새벽 도량서를 시작으로 공양간 허드렛일, 마당쓸기, 나무하기 등 그의 일상은 한결같았다. 맑은 목청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하고 산중의 잠든 원갖 사물을 흔들며 깨우던 노행자 설송 스님. 스님은 지금 어디서 이 겨울을 맞고 있을까.

떨어진 나뭇잎들이 뜨락을 휩쓸고 다니는 이 스산한 계절에 그는 지금 어디서 망연히 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 알 수 없다. 하나 짐작된 대 그는 여전히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전국의 심산고사(深山古刹)를 떠돌며 때묻지 않은 미소를 머금은 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가끔씩 새벽 도량서 목탁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를 떠올리곤 했다. 목소리처럼 눈도 깊고 그윽하게 맑은 노행자, 그를 떠올리며 알 수 없는 향수에 젖어들곤 했다. 육조 혜능을 좋아하고 그의 행적을 기리던 설송 스님, 그도 혜능처럼 죽어라 하고 방아만 칠다가 어느 날 문득 해탈의 문턱에 이르르고 했음인가. 그리하여 해능처럼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강호의 어느 골짜기에 연기처럼

■ 불화 청형사 주지

www.bbsfm.co.kr



BBS FM 101.9MHz

큰스님! 불교방송 맞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즐거움, BBS 불교방송


세상 이야기, 음악 이야기, 문화 이야기, 시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BBS 불교방송 듣고 싶노라면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귀를 땄 수 없는 즐거움, BBS 불교방송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아침예불, 저녁예불
세민스님과 중앙 승가대 스님
매일, 05:00-05:30, 18:00-18:15

경전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밝히는 깨달음의 시간
매일, 05:30-05:50

지광 스님의 지혜의 길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가르침에 대한 명쾌한 새벽 법문
매일, 매일, 05:50-06:00

불교강좌
불교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심을 높이기 위한 불교신학
매일, 06:00-06:20 / 이화명박(불교종지동 법감원)



서울 FM-101.9MHz
부산 FM-89.9MHz
광주 FM-89.7MHz
대구 FM-94.5MHz
안동 FM-97.7MHz
포항 FM-105.5MHz
청주 FM-96.7MHz
문천 FM-100.1MHz